

작년 경북도 세수 결손 1조 2천억 교부세 삭감

경북도 2100억, 시·군 9819억
안동 838 억원으로 가장 많아



경북도가 세수 결손으로 1조 2000억원에 가까운 교부세가 삭감됐다.

이 사실은 지난 17일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사진·비례대표)은 지난해 세수결손으로 경북도는 2100억원, 시·군 9819억원 삭감됐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삭감당한 기초지자체는 안동으로 838억원이 삭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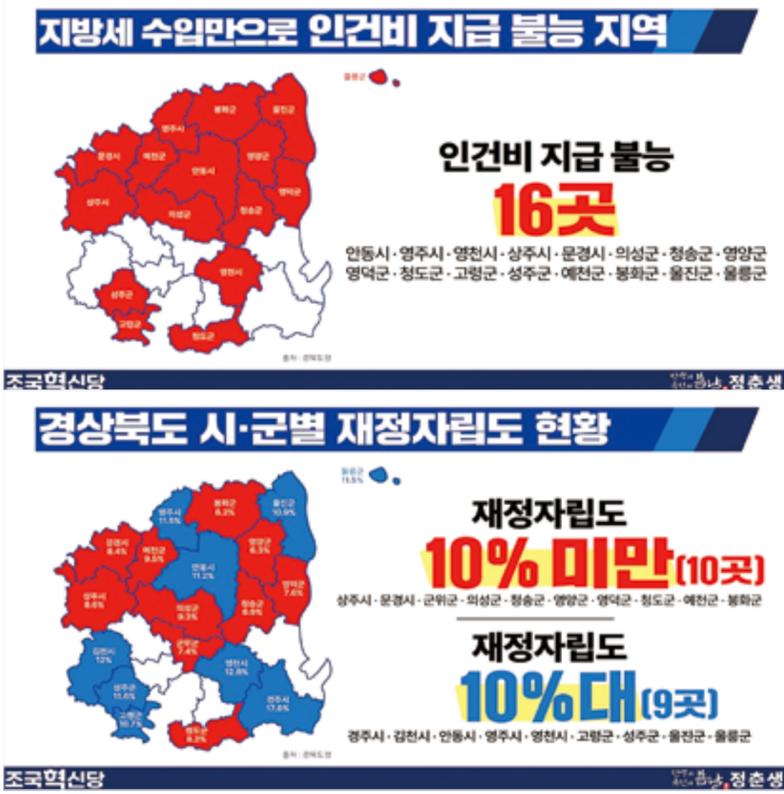
경북의 재정자립도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 의원은 경북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하게 낮은 상황을 꼬집었다. 때문에 경북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가 10 곳, 10% 대인 지자체가 9 곳으로 총 22개 지자체 중 19 곳의 재정자립도가 10% 대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지급이 어려운 지자체도 16곳이나 된다.

결국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보통교부세 미교부는 경북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 23년 보통교부세 감액내역 및 재정자립도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3년 실교부액 (A)	2023년 감액부액 (B)	재정자립도
2023	경상북도 계	11,023,018	9,831,056	25.3
	경상북도 분령	1,942,435	1,732,373	27.4
2022	시군 소계	9,090,583	8,098,683	14.8
	1 포항시	774,052	680,302	25.4
2021	2 경주시	661,016	588,542	17.8
	3 김천시	572,075	510,209	21.0
2020	4 안동시	775,640	691,771	11.2
	5 구미시	461,772	411,851	27.6
2019	6 영주시	470,142	418,910	11.5
	7 영천시	521,542	465,141	12.8
2018	8 상주시	682,433	608,632	9.8
	9 문경시	470,463	418,986	12.4
2017	10 김천시	364,182	324,814	21.9
	11 군위군	325,048	290,711	7.4
2016	12 의성군	409,725	365,470	9.3
	13 정선군	262,451	234,069	8.9
2015	14 영양군	224,251	200,000	8.9
	15 울진군	266,600	237,778	7.8
2014	16 울릉군	278,186	248,102	8.2
	17 고령군	180,633	161,069	10.7
2013	18 성주군	250,777	223,657	11.6
	19 울주군	221,037	197,143	10.0
2012	20 예천군	296,683	264,959	9.9
	21 봉화군	333,246	297,208	8.2
2011	22 울진군	281,860	251,378	10.9
	23 울릉군	96,769	86,304	11.3

* 군위군은 23년 7월 대구시로 편입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30조)이 발생할 만큼, 추가적인 교부세 삭감이 있을 수 있어 경북도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해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7.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기초지자체는 평균적으로 14.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세수결손을 이유로 1조 2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보통교부세 감액이 있었다. 많은

800억대에 이르기까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자체는 재량사업 등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북은 행정안전부에서 지

정한 인구감소 지역이 15 곳 위치한다. 재정이 열악해지면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살리기 5법을 꼭 통과시켜 지방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겠다" 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경북 지자체장 11명, 2년간 재난안전교육 無

저출생...출산·육아 양육 환경 개선 '핵심'

박남서 영주시장 2023년 산발 냉해,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 났지만 재난안전교육 참석안해

경북의 지자체장 11명이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교육을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관할 지역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해야 할 단체장이다.

'1년에 3시간'이라는 최소한의 교육에 불과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장조차 재난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용해인(사진)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서 확인됐다.

행안부가 최근 2년 동안 기초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장·군수·구청장은 43명이다.

해당 교육은 매년 1번 대면 교육으로 3시간 가량이 이뤄졌다.

소속 정당으로는 국민의힘 25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6명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도가 11곳(포항·울릉·경주·김천·구미·영주·청도·성주·의성·정선·봉화)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8곳(수원·부천·양주·남양주·여주·김포·연천), 서울시 4곳(노원·강서·구로·동작), 강원도 4곳(강릉·동해·고성·인제), 충남도 4곳(천안·서산·태안·금산), 전남도 4곳(목포·순천·장흥·영광), 경남도 2곳(양산·합천), 대구시 2곳(수성·달서), 인천시 2곳(부평·강화), 전북도 1곳(부안), 광주시 1곳(북구) 순이었다.

2023년과 2024년 두 해 모두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한 지자체장은 박형덕 동두천시장(국민의힘), 김경희 이천시장(국민의힘) 등 2명에 불과했다.

해당 기간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지만 재난안전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지자체장이 있었다.

박남서 영주시장(국민의힘)은 2023년 산발, 냉해, 집중호우로 영주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난안전교육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주낙영 경주시장, 김충섭 김천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윤경희 정선군수, 박현국 봉화군수도 이에 해당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은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2023년 말 개정된 재난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6월부터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용 의원은 "재난안전법 위반 없이 모든 지자체장이 임기 내 재난안전교육을 적법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교육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수 현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여은 기자

도의회·경북도, 청년에게 듣는다
저출생 극복 위한 현장 토론회
현실적 고민 맞춤형 정책 논의



경북도의회와 경북도가 손잡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저출생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지난 18일 구미에 사는 미혼 청년, 부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구미시 양포도서관 쉼터와 학곡공공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백순창 도의원, 안성열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경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 부부, 학생 등 30여명 참석, 저출생 문제 해

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과 출산 인식 전환이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하고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지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역사회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요청했다.

보육 시설의 부족과 육아비용 부담 등의 현실적 문제들이 언급,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백순창 도의원(구미)은 "구미시는 과거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심축이었지만 지금은 수도권으로의 공장 이전과 청년 유출이 심각해 성장이 멈춰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생 극복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세계적으로 4번째로 많은 새들이 날아드는 오명관광역생태리



최재훈 달성군수는 21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21일 오전 스타 컨벤션웨딩에서 열리는 2024년 교통사고 예방 결의대회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한다.

月刊 정치와 사람
곧 독자들 결의로!

가장 예천다운 축제, 함께 축제, 함께 예천

2024 예천 농산물 축제

2024. 11. 1. (금) ~ 11. 3. (일) 3일간
한천체육공원 일원

- 공식행사** 개장식, 폐막식(시상식), 군민화합 퍼포먼스, 예천축파페스타
- 경연** 예천사과절드립, 우수농산물·친환경농산물·생산지단체 심사
- 체험행사** 어름림한마당(예천군어린이집연합회), 목재문화체험, 건강재활한마당, 전통놀이 체험 등
- 판매행사** 읍·면 농산물 판매장 운영,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 공연행사** 힐링예천 팔관서, 이벤트 행사 등
- 전시행사** 우수농·축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전시, 우리음식 연구회 및 모범음식점 식단 전시 등

| 주최/주관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예천군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2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청아 청아 내 딸 청아' 공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찾아가는 공연인 마당극'청아 청아 내 딸 청아'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공연한다. 이번공연은 군위 지역 내 교통약자와 지리적 소외계

층에 사각지대 없는 문화 복지를 실현과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전공연으로 지역 동아리 단체 '얼썬 민요단'의 흥

겨운 민요 공연을 시작으로 친숙한 고전, '심청전'을 쉽고 새롭게 재탄생 시킨 마당극으로 악과 소리, 춤 등으로 다채롭게 표현한 공연이다.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www.gunwi.go.kr) 또는 054-380-7212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성 기자



달성군, 서재주민지원협의회 사유화 심각...

표심 조작, 공정절차 무시 의혹 제기
전문지 없어 다양한 의견 수렴 못해

달성군의 서재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본래의 설립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의 일부 위원들의 장기 집권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03년 8월에 출범한 협의회는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와 박곡리 지역 주민들의 대표 기구로,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따른 주민 지원과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매년 약 22억 원에 달하는 주민지원기금과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활용해 다양한 지역 발전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최대 10년 이상 연임하며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기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임 위원들 중 5년을 연임한 위원이 2명, 4년을 연임한 위원이 3명 등 대부분이 6년 이상의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주민 선거를 통해 2년마다 선출되는 위원들이지만, 이들은 노인회를 중심으로 사조직을 구축해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민 C씨는 "일부 위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지자들에게 혜택을 주며 표심을 조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일자리인 쓰레기 성상조 사업은 그동안 위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명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들의 업무전문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 문제를 다루는 협의회에 불구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해 효과적인 대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 지식 없이 협의회는 대구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 복토에도 불구하고 침출수 등 강력한 악취가 일상생활을 어렵게 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협의회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재리 내 환경영향평가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아파트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의 비산먼지와 악취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주민 지원기금 혜택에서 제외돼 주민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모 아파트는 협의회와 법정 다툼을 한 적도 있었다.

주민들은 기금이 체육대회, 해외여행 등과 같은 사업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실제로 지역 발전과 모든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동초등학교가 학교발전기금 지원에서 제외된 사례도 이러한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협의회의 중립 제한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환경학을 전공한 인재나 전문가를 간사로 임명하고, 위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재주민지원협의회회장을 역임한 A씨는 "협의회가 진정한 주민 지원과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중립을 제한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조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 온 가족이 함께하는 '2024 YES! 키즈존' 성료

관람객 참여한 어린이 축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이미지 제고

(재)달성문화재단은 지난 19일 국립대구과학관 일원에서 개최한 '2024 YES! 키즈존'이 1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어린이왕자의 과학나라를 테마로 진행된 2회차 '2024 YES! 키즈존'은 달성군과 달성문화재단

이 주최 주관하고 국립대구과학관이 후원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왕자가 '달성'이라는 지구별을 여행하는 콘셉트로 마련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과 무대공연을 통해 관람객에게 잊지 못할 가을날의 추억을 선사했다.

이날 주무대에서 마술사 아리엘의 마술 퍼포먼스를 비롯해 어린이왕자 퍼레이드, 키즈스타 정초하의 무대공연과 K-POP 댄스플레이댄스가 진행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저녁 공연으로는 '볼즈크리에이티브'의 드로잉 퍼포먼스와 남성밴드 '헤이맨', 가수 리치, 걸 그룹 '브브걸'의 공연이 이어져 짙은 여운과 감동을 남겼다. 라이브 프린팅 체험, 캐리커처, 코스튬 의상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국립대구과학관 사이언트리홀에서는 '2024 YES! 키즈존'과 연계하여 뮤지컬 '어린이왕자'를 선보였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지역특화자원 활용 우수기관 선정
농가소득 증대, 브랜드 인지도 UP



달성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특화자원 개발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상품 개발에 전심인 군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달성군만의 기술로 과육이 살아있는 블루베리잼을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다양한 가공기술을 적용해 우수한 품질의 액상차, 침출차, 과채음료·동결건조제품, 밀키트 등 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농가에 적극적으로 이전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달성군 농산물가공 공동브랜드 '마스터파머'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통해 달성군을 대표하는 가공제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개발부터 가공식품 마케팅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군의 관심과 노력, 결정적으로 우수한 결과물이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인정받으며, 지역특화자원 개발 부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우수상)'을 거머쥐게 되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수상은 농산물 가공 제품 개발 및 상품화 추진에 대한 노력의 결과며, 앞으로도 차별적인 지역특화상품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민이 뽑은 하반기 최고 적극행정·시정혁신 사례는?

남구 '위기가구 소중한 생명 구조'
군위 '찾아가는 보건소' 선정

대구시는 지난 18일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적극행정·시정혁신 경진대회'는 시와 구·군,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공직 내 적극행정과 혁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0개의 사례(적극행정 5, 시정혁신 5)에 대해 온라인 시민투표와 전문가 평가단의 현장심사, 유튜브 생중계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참여한 시민평가단(적극행정 주민 모니터링단)의 온라인 심사를 통해 각 분야별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대회 결과,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내 이웃을 살리는 기적의 비법, 대명9동 위기가구 소중한

생명 구조(남구 대명9동)'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기적의 비법 3가지인 고독사 안심 앱, 고독사 안심주택, 이승사자단 사업을 통해 자살기도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고 고립 은둔형 중년 남성을 구조하는 등 고독사 없는 안전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시정혁신 분야에서는 '군민의 건강을 배달해 드립니다! 찾아가는 보건소(군위군 보건소)'가 최우수로 차지했다.

수상 사례는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공중보건의가 직접 경로당을 찾아가 진료, 의료상담, 건강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적극행정 분야 우수에는 '원스톱 기업투자! 논스톱 적극행정! 투자 위기탈출 넘버원!(대



구광역시 투자유치과), 시정혁신 분야 우수에는 '봄·여름·가을·겨울 언제나 우리 곁에, 신천 물놀이장!(대구광역시 신천개발과)'가 선정됐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시민의 불편함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공직 내 적극행정과 시정혁신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군위군, 대구시 시정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건강을 배달합니다 :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혁신적인 보건 서비스

군위군이 지난 18일 대구시가 주관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 시정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 본청과 9개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한 적극행정

및 시정혁신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2차 발표심사를 집계하여 진행됐다.

군위군은 올해 3월부터 군 보건소에서 추진한 '찾아가는 보건소'를 우수사례로 참가하였으며, 고령화와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지역주민들을 찾아가 건강검진과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혁신성이 높게 평가됐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박재성 기자

군위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군위군은 지난 17일 군위읍을 시작으로 25일까지 '2024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8개 읍면행정복지센터 순회검사(10월 17일부터 10월 23일)와 소재장소 정기검사(10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자는 2년에 한 번 반드시 검사를 수검해야 하며, 검사대상은 귀금속 판매업소·정육

점·슈퍼마켓·농축협공판장·청과상 등에서 상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판수동·접시저울·판지시·전기식 저울 등 비자동 저울이다.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형식승인 제외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다.

군은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합격필증을 부착해 상거래의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 부적합 시에는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요 검사내용은 △계량기 표시사항 등 구조

검사 △기 정기검사 수검 여부 △사용오차 검사 등이다.

군 관계자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통해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를 유지하여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있다"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저울이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저울 이동 시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정밀저울의 경우, 다수의 저울이 인접한 장소에 밀집한 사업장 등에서는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박재성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8(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j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전남 의용소방대 연합회 상생협력 화합행사

2024 대구정원박람회 건강체험터 운영

한국건강관리협회경북지부는 최근 하중도에 서 열린 '2024 대구 정원박람회'를 찾은 방문객

을 대상으로 건강체험터를 운영했다.

올해 한국건강관리협회 창립60주년을 맞아 '2024 대구 정원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을 높이기 위해 뇌파·맥파 건강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간헐 경북지부는 단체헌혈뿐만 아니라 후원 사업, 메디체크봉산단 운영, 인직원 봉급모으기 캠페인, 취약계층 사회공헌건강검진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아 3



105회 전국체육대회 대구 5위 경북 3위 위업 달성

대구 학생 선수 총 88개 메달 획득
경북 학생 선수 총 125개 메달 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대구 경북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대회는 지난 11~17일까지 경남 김해종합운동장 등 75개 경기장에서 열렸다.

대구 학생 선수들은 금 27개, 은 30개, 동 31개 등 총 88개 메달 획득했다.

고등부는 5위 달성, 역대 최고 성과를 올렸다.

경북 고등부 선수단은 4회 연속 종합 3위의 위업을 달성했다.

대구 고등부 5위

대구교육청은 대구 체육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로, 다양한 종목에서 고른 활약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개인종목에서 대구체고 역도 권대희 선수는 3관왕을 차지, 전국체육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양궁의 윤수희 선수 역시 3관왕의 영광을 안으며 대구체고의 자부심을 높였다.

역도 대구체고 김성호·김수민 선수, 사격 대구체고 반효진·장병준 선수, 레슬링 경북공고 장성민 선수, 양궁 경북고 김기범 선수가 각각 2관왕을 기록하며, 대구 학생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다.

단체종목에서도 대구 학생 선수들의 활약은 빛났다.

상서고는 탁구에서 우승을, 상원고는 럭비에서, 현풍고는 축구에서, 대구공고·경북고는 검도에서 각각 준우승을 차지해 강한 팀워크를 과시했다.

계성고는 농구에서, 상원고는 야구에서, 대원고는 세팍타크로에서 각각 3위에 오르며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시 학생 선수들이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매우 자랑스럽다.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이룬 값진

결과로, 대구 체육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육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 4회 연속 종합 3위

경북교육청은 대회에서 금메달 44개와 은메달 43개, 동메달 38개로 총 125개(시범경기 포함)의 메달을 획득해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종합 3위(1만9477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성과는 제100회 서울대회부터 제103회 울산, 제104회 전남대회까지 이어진 놀라운 성과다. 코로나19로 인해 제101회 대회는 열리지 않았고, 제102회 대회는 고등부만 개최됐으나 공식 성적 집계는 없었다.

경북 고등 선수단은 부별 한국 신기록 1개와 대회 신기록 5개를 수립했다.

역도 여고부 용상 76kg 전희수(경북체육고 2년) 선수가 131kg을 들어 부별 한국 신기록

을 세웠다. 또한, 전희수 선수는 인상 76kg에서 98kg, 합계 76kg에서 229kg을 기록하며 대회 신기록도 경신했다.

자전거 남고부에서는 박준선(영주제일고등학교 3학년) 선수가 스프린트에서 9초 949, 1km 개인 독주에서 1분 3초 221의 기록을 세웠다.

육상 여고부 원반던지기에서는 이혜민(경북체육고 3년) 선수가 50m 88로 대회 신기록을 세웠다.

이번 대회에서 9명(3관왕 3명, 2관왕 6명)의 다관왕이 배출됐다.

전희수(역도 여고 76kg급, 경북체육고 2년) 선수가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3관왕에 올랐고, 박준선(자전거 남고, 영주제일고 3학) 선수가 1km 개인 독주와 단체스프린트, 스프린트에서 3관왕을, 탁구 남고 김가은(두호고 3학) 선수도 개인전과 혼합복식,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다.

육상 여고 안나경(포항이동고등학교 3학년) 선수가 400mH와 400mR에서 금메달을, 박지

영(경북체육고 2년) 선수가 100mH와 400mR, 박혜민(경북체고 3년) 선수가 5000m와 10km, 탁구 여고 임지수(영천여고 3년) 선수가 개인전과 혼합복식, 소프트테니스 여고 박은정·황정미(우석여고 3년) 선수가 개인 복식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단체종목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핸드볼 남고 선산고등학교와 소프트테니스 여고 경북선발(우석여고, 경북조리과학고등)은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탁구 남고 두호고등학교와 하키 여고 성주여고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학교체육 기반 강화와 정밀한 학교 운동부 운영, 운동부 등급 평정제 운용, 훈련비 지원, 체육시설 확충, 지도자 처우 개선 등 꾸준한 지원의 결과로 평가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경북 학교체육의 우수성을 이어가며 학생들이 훌륭한 체육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도, 농산물산지유통 국비 공모사업 전국 최다 선정

산지유통시설 6곳 국비 100억 확보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앞당긴

경북도는 2025년 농산물산지유통 분야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대인 국비 100억원(총 사업비 251억원)을 확보했다.

세부 사업 선정 내용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영주시(150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의성군(47억원), 상주 공성농협(34억원) △유통시설현대화 남청송농협(9억원), 동문경농협(7억원), 문경 점촌농협(4억원)으로 총 6개소가 선정됐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 상품화 및 가격화에 필요한 집하·선별·저장·출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시설로 도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 수급 조절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개소당 최대 150억원을 투자해 규모화된 점당시설을 조성한다.

소규모 산지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하

는 사업으로 경북도는 2024년(김천시)에 이어 2025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2025년 신규 선정된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영주시 순흥면 일대에 약 1만 2300㎡ 규모로 조성한다.

사과 전문 스마트화 장비 도입으로 상품화율을 높이고 사과 수급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농업대전환을 농정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생산·가공·유통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변혁을 만들어 가고 있다.

농식품 유통 대전환을 위해 산지 유통시설의 스마트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공모사업 평가시 경북이 원예농산물 최대 산지이자 가장 선진화된 지역임을 강조한 것이 국비 최대 확보라는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 현재 도내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3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2026년까지 20개소 육성한다. 김성용 기자

수성구, '2024 대한민국 SNS 대상' 서 대상 수상

김대권, 맞춤형 콘텐츠 제작
주민 소통 강화 행정력 모아

수성구청이 2024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 지자체(자치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SNS는 주민과 공감·소통하는 중요한 홍보매체다. 앞으로도 다채롭고 재미있는 수성구 맞춤형 콘텐츠 제작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SNS대상'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회가 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한다.

올바른 SNS 활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이용자와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소셜미디어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행사이다.

7~9월까지 두달 간 진행된 이번 평가는 활용지수, 영향력 지수 등의 정량 평가와 심사위원 및 내부 전문가가 평가 그리고 사용자 투표로 심사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사용자 투표에서는 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수성구를 투표해 수상에 힘을 보탰다.

수성구는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으로 구성 소식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수성구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친근하면서도 차별화된 디자인의 카드뉴스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 확보를 위해 감각적인 디자인과 트렌디한 소재를 활용한 기획·쇼츠 영상과 수성 웹툰을 제작해 연령대에 맞는 우수한 콘텐츠로 기획력을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하여 알방적인 정보제공



을 지양하고 이용자간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행복수성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힘을 모은다.

수성구는 같은 대회에서 2020년~2021년 2년 연속 대상 수상, 2023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소셜인터넷 서비스 혁신 대상 시상 행사인 소셜이 어워드 페이스북 분야에서도 2022~2024년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온라인 소통 1번지임을 입증받았다.

청소년 함께 모여 즐기고 학업 스트레스 날려!

2024 경북도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
이철우, K-청소년 경북서 적극 응

'2024 경북도 청소년 페스티벌'이 지난 19일 영주시 선비 세상 일대에서 열렸다.

페스티벌에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과 전생 본부장 및 도내 1,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했다.

'K-culture, Dreaming World'라는 주제로 펼

쳐진 이번 페스티벌은 도내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갖고 닦은 성과를 뽐내면서 소통하는 축제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는 동아리 경연대회, 2부는 개막식 및 시상식, 3부는 중국 변경 및 뮤지컬 갈라쇼, k-pop 공연 등을 선보였다.

부대행사로 마술 체험, 동아리경연, 진로 타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축제 열기를 더했다.

각 시군을 대표하는 청소년 가수단이 입장해 청소년 비전 선포식을 가지고, 내빈들과 함께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축하 세리머니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도내 시군을 대표하는 동아리 경연대회는 공연 7팀이 밴드, 댄스, 힙합, 4차산업, 문화, 요리, 공예 체험 등 그동안 갖고 닦은 다양한 활동을 선보였다.

행사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들도 많이 와서 공연을 관람하거나 체험 부스에서 인형 만들기, 드론 스포츠 체험 등을 즐기며 축제에 함께했다. 전상기 기자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

강은희, '꿈을 향한 도전,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에 참석, 대구선수단을 격려했다. 결단식은 10월 18일 대구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대회는 25~30일까지 경남 김해 일대에서 열리는 대구에서는 고등부 학생 19명을 포함, 23개 종목에 총 39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결단식은 대구 대표로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고, 대회 기간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황태용 기자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 군위거점학교 운영 문제

김준혁, 군위 거점학교 운영 정책 많은 반대가 있다 학부모 반대 있는데도 거점 학교 육성 정책



군위군 거점학교 운영 문제가 국정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경북대에서 열린 대구·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감에서 대구교육청의 군위 거점학교, 국정교과서, 측근 정치에 대한 우려, 딥페이크(Deep fake·AI로 만든 조작물) 문제 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사진)의원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군위 거점학교 운영 정책에 아주 많은 반대가 있다”며 “학부모 등의 반대가 있음에도 거점 학교 육성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계획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에 있던 전교조 대구지부의 교육감에 대한 중간평가 설문조사를 보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81.3%”라며 “이는 교육감이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군위군에 투입할 많은 예산을 보면 상당한 규모인데 이를 통해 아이들 교육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확신한다”며 “학부모, 학생과 소통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강 교육감에게 “박근혜 정부 시절 장관(여성가족부)을 하지 않았냐”며 “그때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찬성 입장이었다. 지금도 그때 당시의 생각은 변함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 교육감은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접하며 국정교과서를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며 “더 많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교재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의 폭은 교사들에게도 보장돼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상당히 이게 반대된다. 국정교과서를 찬성했던 분이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며 “국정교과서를 찬성했던 분이 이번에 나온 뉴라이트 성향의 학력평가원에 있는 교과서 채택에 대해 혹시라도 교육감 의견



경북도 국정감사장에 등장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17일 오전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박정희 대통령 동상에 관련한 자료가 송출되고 있다.

을 강요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을 통해 보면 자유로운 선택과 자율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자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교과서의 선택권은 전적으로 학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교과서를 적절하게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대구·경북지역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 현황도 공개됐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딥페이크 범죄 피해 현황을 공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와 경북의 딥페이크 학폭위 심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서 대구는 총 8건의 학교 딥페이크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8건의 신고는 모두 올해 이뤄진 것이었다.

대구지역 가해자 규모는 9명이다. 피해자 규모는 16명이다.

경북에서는 같은 기간 모두 11건의 학교 딥페이크 관련 신고가 있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건, 2023년 1건, 올해 9건이다.

경북지역 가해자 규모는 21명, 피해자 규모는 45명으로 파

악됐다.

서지영(국민의힘) 의원은 “교직원 주책 임차비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 전남교육청 3곳인데 대출 이자가 무이자이다”며 “우리나라에서 어떤 국민이 대출받을 때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관사에 들어갈 수 있는 선생님들 들어가지 못하는 선생님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북지는 교육청마다 다른 분야를 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인정 '환경성 질환' 피해 1만8000명 육박

대구 안심연료단지 등 인근 주민 중 환경오염 피해 인정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모두 3645명 이 중 313명 8.6% 사망



정부가 공식 인정한 '환경성 질환' 피해자가 누적 1만8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정부 구제를 받기까지 한 달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석면·서천 옛 장항제련소·김포 거물대리·대구 안심연료단지 등에서 확인된 환경성 질환 피해자는 누적 1만7481명이다.

“환경성 질환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환경 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된 질환을 말한다.

현재 특별법으로 정부가 구제 중인 환경성 질환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석면 피해와 서천 옛 장항제련소·김포 거물대리·대구 안심연료단지 환경오염 피해 등이 있다.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 8월31일 기준 누적 5787명이다. 10대 이하가 전체의 약 25.9%(1498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842명), 40대(807명), 20대(783명), 60대(755명), 70대(644명), 80대 이상(252명), 30대(206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1874명), 서울(1227명), 인천(420명) 등 수도권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었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특별유족을 포함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049명으로 파악됐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노후화된 과거 학교, 슬레이트 지붕, 공중화장실 등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됐으나 노출 시 폐 질환을 일으켜 2009년부터 국내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석면 피해자 외에 특별법 시행 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도 구제급여를 지급 중인데, 이러한 특별유족과 석면피해자는 각각 1176명, 6873명이다. 질병별로 보면 분진이

폐에 흡착돼 섬유화가 나타나는 질병인 석면폐증(4622명)이 가장 많았고 폐암(1417명), 악성종괴종(장기를 덮는 보호막인 종피에 발생하는 질환·8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김포시 거물대리, 대구시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 중 환경오염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총 3645명이다. 이 중 313명(8.6%)이 사망했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역학조사로 중금속 오염,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 실태가 밝혀진 곳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 주민에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환경성 질환 피해 신청 이후 구제급여를 받기까지는 평균 보름에서 1개월 이상이 걸린다.

가습기살균제 요양급여의 경우 지급요청부터 지급완료까지 평균 32일이 소요됐다. 길어질 경우 364일이 소요된 적도 있었다. 간병비는 평균 43일, 장해급여는 평균 24일, 요양생활수당은 평균 15일, 구제급여조정금은 평균 111일이 소요됐다.

석면 피해는 평균 9~10일이 걸렸는데, 최대 28일 걸린 적도 있었다.

다만 이는 신청 서류 미비로 보완이 이뤄진 기간은 제외된 기간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구제급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1311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석면피해는 누적 1191억4700만원, 서천 옛 장항제련소·김포 거물대리·대구 안심연료단지는 총 75억2200만원이었다.

석면피해만 해도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성질환 피해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경보건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산하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피해구제 관련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하는데, 민원도 많고 기관 본연의 업무가 아니어서 기술원 내에서도 '기피 업무'로 분류된다.

강득구 의원은 “지금까지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환경성 질환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문 기관이 없다 보니 인정부부터 구제, 지원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있다”며 “환경성질환 피해자 인정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연구 관리할 전담 기관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교수 채용 비리 교수 연구비 착복 질타

경북대 병원 국정감사 백승아의원, 신관 70년 구관 100년 너무 처참 병원 노후화 맹 질타

“귀신 나오는 줄 알았어요” “3년 동안 요구가 없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구 중구 동인동 경북대의대 현장 시찰 후 시설 노후화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는 17일 경북대에서 경북대·강원대·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교육위는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경북대의대 현장을 시찰했다.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경북대병원의 노후화와 교수 채용 비리, 교수 연구비 착복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지역(국민의힘) 의원은 “경북대학교 병원은 대구·경북 권역의 거점 책임병원이다. 하지만 시설의 노후화된 부분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며 “학교가 시설이 노후되도록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서 의원의 지적에 “병원 측이 3년 동안 시설 노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오늘 학사는 시설 노후에 대해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원들을 안내하고 인도했는데 총장은 그러한 요구가 없었다 말한다”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시설이 노후되도록 학교 측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고 묻는

데 요구가 없었다라고 답하니 당혹스럽기 그지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북대병원 시설 노후화를 언급하며 “경북대병원에 갔더니 70년, 80년대 대학병원인 줄 알았다”며 “카테나(해부용 시신) 실습실은 귀신 나오는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관은 70년, 구관은 100년 됐다고 하니 너무나 처참하다”고 전했다.

홍 총장은 “교육부가 열심히 재정 지원을 해주면 시설 개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경북대 교수 채용 비리와 교수의 연구비 착복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정성국(국민의힘) 의원은 경북대 교수 채용 비리와 연구비 착복을 지적하며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교수 7명이 검찰에 송치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홍 총장에게 물었다.

홍 총장은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대학생들이 모여 있는 집단에서 채용 비리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고개를 못 들 정도”라고 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해 물의를 빚었던 홍 총장은 퇴임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 지원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총장에게 “퇴임하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으로 가느냐”고 묻자 홍 총장은 “지원했다”고 인정했다.

문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신청했는데 행보를 보면 전형적인 폴리페시의 느낌이 든다. 홍 총장 연구재단 이사장에 내정 약속 받은 것 아니냐”며 “인기가 만료되는 경북대 병원 이사회 상임감사를 퇴임 1주일 전 선임한 것은 자기자리를 심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정감사 취재반

월간 정치와시림 곧 독자 결의로 다가갑니다!

경주 포항
영천 영덕
청송 영양
울진 울릉

경주 '성건지구' 도시재생...행정력 집중

정부 최대 150억 지원 사업
전문기관과 사업 업무협약
이달 국토부 공모 접수 완료



경주시와 주택정비전문기관인 경주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7일 개별자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성건지구 뉴·빌리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국사농협-기림사, 백미 기부

경주 불국사농협과 대한불교 조계종 기림사는 지난 14일 지역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kg 쌀 130포를 불국동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지난 9월에도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가래떡 나눔 행사와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 쌀 소비 촉진 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들은 소외 계층을 돕고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취지로 진행되었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도 조합장은 "이번 나눔이 저소득층과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울릉농협 상호기부 동참

영주시는 안정농협과 울릉농협 이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영주시청에서 열린 상호기부 약정식에는 손기를 안정농협 조합장, 정종학 울릉농협 조합장 등 6명이 참석해 서로의 발전을 응원하며 각각 300만원을 기부하였다.

손기를 안정농협 조합장은 "울릉농협과의 상호기부를 통해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울진 근남면, 반찬 후원

울진군 근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6일 근남면 새마을부녀회와 협력하여 51가구에 김치반찬을 지원하는 열번째 마을담은 김치반찬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본 사업은 한수원(주)한울원자력본부 후원으로 매월 1회 지역 내 저소득 및 독거노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균형잡힌 영양 제공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마을 부녀회원들은 매월 여러 가지 김치와 반찬을 만들고 있으며, 이 달에는 육개장, 닭볶음탕, 총각김치, 미역줄기김치, 튀김 등 7가지 반찬을 정성스럽게 마련하였다. 조리된 반찬은 근남면 마을이장님들이 각 가정에 직접 배달하면서 안부 확인도 하였다.

경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성건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체육시설, 문화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150억을 지원하며, 자금용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주시와 주택정비전문기관인 경주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7일 개별자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성건지구 뉴·빌리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부 주관 공모 사업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주택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개별 주택 건축주의 사업성 분석, 건축 행정을 대행하기 위한 지원·협력,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조사, 안전 기능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관련 정보 공유 등 공공복리를 강화하도록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희망

하는 지역민들에게 건축 전문지식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며, 뉴·빌리지 사업 선정에 한층 더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앞서 경주시는 '뉴·빌리지' 사업을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에 추진하기 위해 이달

국토부 공모 접수를 완료했다.

이재희 경주지역건축사회장은 "우리 지역의 입지 여건을 반영한 건축 행정을 지원하고 협력해 개별 주택 정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석 경주시 철도도심재생과장은 "국비 공모 사업에서 신속하게 사업성을 분석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 기관의 참여로 공모 사업에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포항시장, 2024 브레인 링크 기술교류회 참석 특강

교류 확대 · 글로벌 연구 활성화 이차전지 연구개발 행정력 집중

이강덕 포항시장이 '2024 브레인 링크(Brain Link) 기술교류회'에 참석한 국내외 이차전지 석학들에게 포항의 이차전지 산업의 성과를 알리는 특강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18일 인천 그랜드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브레인 링크 기술교류회에 참석한 국내외 이차전지 전문가 60여 명을 대상으로 이강덕 시장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중심, 포항'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12대 국가 전략기술의 하나인 이차전지를 매개로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연구 공유 및 네트워크를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국내외 이차전지 석학들이 함께했다.

행사는 세계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부설 연구기관, 대학 및 해외한민과학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 인적교류 확대 및 글로벌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별강연에 나선 이 시장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포항 이차전지 산업의 성과를 설명하고, 포항이 이차전지 산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그간의 발

차취에 대한 소회를 나눴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는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과 이차전지 해외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관련 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최적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차전지 인재 양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 이차전지 연구개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5주간 주왕산 관광객 교통 대책 실시

군 임시주차장 조성 방침 주말 기간 차량 통제 · 안내

청송군은 가을 단풍철 주왕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주간 주왕산 특별 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이는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상황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며, 청송군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말 동안 차량 통제 및 주차안내를 위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특별 교통대책을 통해 청송을 방문하는 관광객분들에게 깨끗하고



은 '산소카페 청송군'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왕산 탐방객 수는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도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문 기자

영덕 CCTV 통합관제...안전 지킴이 역할

최근 계곡 추락車 사고 대응 24명 관제요원 24시간 대응

영덕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늦은 밤 발생한 교통사고에 발 빠르게 대처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해당 관제요원은 지난 15일 밤 11시 30분경 영덕군 달산면에 있는 옥계계곡 침수정 주변 도로를 주행하던 흰색 승용차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계곡에 추락해 있는 것을 CCTV 관제 중에 발견해 즉시 112와 119 신고센터로 사고를 신고했다.

사고 현장은 가로등도 많지 않아 사고 현장 주변은 물론 운전자의 상태도 파악하기에 어려웠지만, 해당 관제요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신속히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사고를 파악하고 수습하는 데 결정적인 역

할을 했다. 이에 김영성 영덕경찰서장은 해당 관제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해당 관제요원은 "늘 최일선에서 군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관제요원의 중요성과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더욱 열심히 복무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긴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24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동안 지역의 구석구석에서 발생한 어떠한 사건·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며, "군민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영유하실 수 있도록 통합관제시스템을 더욱 더 체계화하고 관제요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업무환경 개선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영양군 농업인대학 치유농업과정 수료식

3월 입학식 시작 7개월 운영 치유농장 운영 · 치유농장 체험

영양군은 지난 17일 영양군 농업인대학 치유농업과정 수료식을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전문성을 갖추고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된 이번 과정은 지난 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7개월 간 운영됐다.

총 18회(80시간) 이론, 실습, 현장견학 교육과정으로 진행했으며 14명 수료생을 배출했다.

치유농업은 농업이 현대인의 사회생활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에 착안하여, 농업이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힐링과 치유의 방법으로 전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과정에서는 치유농업의 기본적인 요건, 현장실습을 통한 치유농장 운영, 치유농장 체험을 하여 수료생들이 치유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어 교육을 실



시하여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김기홍(임암면) 교육생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공로상을 서영복(영양읍), 한영진(임암면) 수료생이 개근하여 표창장을 수여 받아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용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으로 영양군의 치유농업 확산과 미래 농촌을 선도해 나갈 농업인을 양성하여 든든하고 기쁘다"라며 "향후 영양군 농업발전을 위한 역량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윤동 기자

제8회 영천댐 별빛걷기대회 성황리 열려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 병행 캠핑페스티벌 동호인 동참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영천댐 둘레길을 걷는 '제8회 영천댐 별빛걷기대회'가 19일 영천댐 일원에서 열려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대회에는 영천지역 농협을 비롯해 사회단체 동호인, 육군3사관학교와 2향공단 등 영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 등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했으며, 지난 18~20일까지 영천댐 오토캠핑장에서 함께 열린 'K-water와 함께하는 제1회 영천댐 캠핑페스티벌'에 참가한 캠핑 동호인 가족들도 대거 참여해 분위기를 돋

웠다. 이날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폭포가 있는 영천댐공원 주무대에는 물풍선 던지기, 수질정화키트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가 설치됐다.

또한 영천시청 산림과의 산불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영천소방서 의용소방대의 심폐소생술 시연 등으로 행사장 분위기를 더했다.

먹거리 부스에 마련된 어묵은 완주자들에게 최고의 인기였으며, 완주자들은 기념사진을 찍고 특별무대 공연에 맞춰 단체 댄스를 추는 등 비가 오는 날씨에도 대회를 즐기고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최은하 기자

경산 구미
김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구미시, AI·메타버스 산업육성...美기업 협약

리빙 팝업 교육 앱 개발사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회사
같은날 블리자드 회사 방문

브룩의 CEO 엘리엇 위슬러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리빙 팝업스는 증강현실 기반의 몰입형 교육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로, 클리어브룩은 2023년 LG 전자 북미이노베이션센터와 함께 1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조성한 투자회사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와 오버워치 등으로 유명한 게임사로, AI와 메타버스 기술이 게임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설명을 듣고, 제작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동 주관한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경상북도 국제 AI·메타버스 영화제(GAMFF)를 홍보했다. 아울러, 영문 홍보 책자를 활용해 구미시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집중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을 단장으로 한 구미시 대표단이 12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17일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AI 및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시는 AI·메타버스 산업의 빠른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시는 메타버스 기술이 게임 산업에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구미의 게임산업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영화제 참여를 통해 구미시와 글로벌 영화 산업 간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구미시의 문화 자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과의 협력과 글로벌 행사 참여를 통해 구미시의 국제적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대표단은 미국 최대 게임 개발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를 방문했다.

이후 대표단은 제25회 뉴포트비치 영화제(NBFF)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영화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했다. 패션 아일랜드에서 열린 영화제 오프닝 나이트 행사에서는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주관한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경상북도 국제 AI·메타버스 영화제(GAMFF)를 홍보했다.

송영주 기자



대동종합건설 성금 기탁

대동종합건설(주)은 지난 15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대동종합건설(주)은 경산 백천동에 소재한 종합건설회사로, 산업현장 및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과 함께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다.

이번에 (주)삼성택 제2공장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되면서 (주)삼성택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뜻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김광팔 대표는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낼 우리 이웃이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기탁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천 개령면, 인구회복 홍보

김천시 개령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7일 개령면 덕촌3리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구회복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령면 인구회복 릴레이 캠페인은 4월 황계1리 경로당부터 시작해 매달 개령면 관내 마을의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로 심각해지는 인구감소의 문제점을 알렸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덕촌3리 주민들과 인구감소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신고를 안내했다. 특히 귀농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전입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천 우수 기업체 전학 프로그램 실시

김천상공회의소 주관 과정
(주)우진산전 김천공장 전학

김천시는 지난 18일 2024 김천시 우수 기업체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김천시 우수 기업체 견학 프로그램을 김천시가 주최하고 김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기업체 견학 프로그램으로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김천시 우수 기업체 현장을 탐방하며 우리 지역의 우수 기업을 알리고, 현장 체험의 기회를 통해 취업 의지를 높이고자 실시한다.

이날 견학 프로그램은 칠곡군에 소재한 경북기계명장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철도차량-전기버스 제작 전문기업인 (주)우진산전 김천공장 현장을 견학하고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 시의 근무지 기준 취업자(김천 사업장 취업자)가 86,000명, 거주지 기준 취업자수(김천에 주소와 두고 있는 취업자)는 74,000명으로, 타지역에서 김천으로 유입한 근로자수가 12,000명으로 나타났다.



김천시는 우수 기업체 견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타지역에서 김천시로 취업하는 청년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관내 우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전원 일자리경제과장은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관련 통계를 보면 전년 대비 타지역 유입"이라고 말했다.

취업자 수가 경북 도내에서 우리 시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우리 지역에 우수 기업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우수 기업체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내의 구직 희망자들이 김천에서 구직 활동을 통해 기업의 취업난도 해결하고 지역에 정착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 기업체 견학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실시하며, 이후 견학 프로그램은 관내·외 특성학교 학생과 청년 구직자, 거주 외국인(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강과 취업박람회, 우수 기업체 견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회 청도군 복지박람회 성황리 열려

관련 종사자 등 1000여명 참여
30여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 홍보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제1회 청도군 복지박람회가 18일 새마을공원 일대에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및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복지박람회는 군민에게 복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시기 진작 및 기관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참여와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30여개의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행복한 생활을 위한 가족 및 보육 상담,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 체험, 가상음주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더불어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레크리에이션 어울림 한마당, 주민들의 재능나눔공연, 농협의 우리쌀과 축협의 한우 먹기 홍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 캠페인도 병행하여 실시됐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제1회 복지박람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의 자리가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여 모두가 행복한 희망공동체 정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성주군 귀농인 역량강화 현장 교육 실시

상주시와 진천군 현장교육
스마트팜 재배시설 체험 등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쟁력 있는 귀농인 육성 및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 10월 18일 귀농인연합회원 30여 명이 참여하여 경북 상주시와 충북 진천군에서 귀농인 역량강화 현장교육을 추진하였다.

이번 교육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팜의 분야별 시스템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회원들은 진천군에 농업과 문화가 연결되는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인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물스퀘어'를 방문하여 식물공장, 스마트팜 재배시설 및 아쿠아포닉스 등 미래 농업 기술을 체험하면서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배움의 열기로 뜨거웠다.

교육에 참석한 성주군귀농인연합회 김경민 회장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귀농인 현장교육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우리 지역의 귀농인들과 함께 교육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양한 농업재배 시설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주섭 소장은 "농업주소의 1조원 시대를 달성하고 앞으로 참외주소임 7천억 원을 목표로 한 성주군의 영농정책을 이끌어 갈 귀농·귀촌인들이 잘 정착해 살기 좋은 성주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재훈 기자

젊은 고령! 건강한 고령!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고령군에 기부하세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 기부대상: 개인(법인, 단체는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령군이 아닌 고령군에 기부하고 싶은 누구나(※ 연간 500만원 한도)
-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기부금 [대면] 전국 농협은행
- 기부혜택: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이내

※ 고향물 쿠폰을 선택하시면 수박, 전통장류, 딸기잼 등 274개의 다양한 특산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문의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054-950-6803 고향군

안동 영주 문경 상주 예천 봉화 의성



상주 노인봉사단, 환경 운동

상주시 동문동 노인자원봉사단에서는 지난 17일 지역주민의 쉼터이자 문화 향유의 공간인 북룡동 상주시민문화공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서는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여 명의 노인자원봉사단 단원이 공원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 제거 및 산책로 정비 등을 진행했다.

정경옥 봉사단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어 매우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우리 봉사단은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동 중구동, 강변 정화

안동시 중구동 새마을부녀회는 10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관내 낙동강 둔치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회원들은 축제기간 중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탈춤축제장 주변과 빗길길 일대부터 강변길을 따라 둔치 일원 도로변의 쓰레기와 낙엽을 수거했고,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깨끗한 중구동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중구동새마을부녀회는 헌옷 모으기와 꽃꽂이 등을 통해 자재적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다양한 봉사활동 및 저소득층 나눔 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봉화농협, 생강 수확 돕기

봉화농협은 17일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회원, NH봉화군지부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을철 일손이 부족한 생강수확 농가에 일손을 보탰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생강 캐기, 생강 수확, 선별작업 등 영농활동을 지원했으며 영농철 일손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박만우 조합장은 "이번 일손돕기 봉사활동이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장을 찾아가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 저출생 대응...행정 역량 모은다

저출생 대응 정책 토론회
과제 실현과 신규과제 발굴
49개 정책 과제 보고 논의



문경시는 지난 17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김대식 부시장 주재로 문경시 저출생 대응 정책 실현 과제 팀장 및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저출생 대응 정책 실현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저출생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현상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어, 경상북도에서는 선제적으로 2월에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주요 저출생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시의 저출생과제 실현과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6개(만남주선, 임신·출산, 안전돌봄, 양성평등, 안심주거, 일·생활균형)분야로 선정하여 11개부서 49개 정책 과제(수법사례2건포함)에 대한 보고와 부서별 협조 사항 전달 및 자유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문경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신규과제에 대해 분석·개선하고, 경북도 및 부서간 유기적 소통으로 적극적인 대응과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예정이다.

김대식 부시장은 "저출생 문제 극복은 한 부서에서만 열심히 추진한다고 되는 사안이 아니라 여러 계층 팀장님과 담당자들이 정책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사회전반적인 문

화 문제라며 "저출생 문제 극복은 한 부서에서만 열심히 추진한다고 되는 사안이 아니라 여러 계층 팀장님과 담당자들이 정책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사회전반적인 문

가양酒 유통 주제...안동 전통주 박람회

전통주 문화대축제 공동 개최
9개 기업서 전시·시음·판매

전통주 및 패키징을 전시·시음·판매했다. 버스킹공연과 콘서트, 각테일 경연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어 관광객의 눈과 귀를 더욱 즐겁게 할 예정이다.

안동시와 (재)한국정성문화재단은 18~20일 까지 안동 월영교 일원에서 '가양주 패키징을 위한 안동 전통주 박람회'를 개최했다.

안동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일환인 이번 박람회에는 총요양, 노송정 등 11개의 종가를 비롯한 안동소주를 생산하는 9개의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이번 축제는 2024 경북 전통주 문화대축제와 공동으로 개최해, 도내 16개 종가와 22개의 전통주 판매업체의 부스 설치 및 공연으로 다채로운 박람회 가 됐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러시아, 베트남, 뉴질랜드의 주류 바이어와 경북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한 MOU를 체결해 안동소주를 포함한 경북 전

통주의 대외 인식을 제고하고 세계화를 위한 유통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통주 관련 전문가와 주류 유통 관계자가 참여한 안동 술 수출 간담회와 술 가이드북 제작 품평회를 개최해 전통주 문화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종가의 가양주 및 안동소주를 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안동시와 안동소주를 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안동시와 안동소주를 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시 '선비세상' 쿠킹클래스

영주시 K-테마파크 '선비세상'에서는 19일 원데이 쿠킹클래스를 운영했다.

'선비세상' 원데이 쿠킹클래스는 영주의 특산물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0월에 실시되는 쿠킹클래스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식 할로윈, 도깨비'를 테마로 진행되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도깨비햄버거'(11시)와 '거미쿠키'(14시) 체험이 진행되며, 계속해서 26일에는 '유령머핀', '도깨비쿠키' 메뉴가 진행될 예정이다.

11월에도 K-테마파크 '선비세상'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들을 쿠킹클래스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선비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클래스별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선비세상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영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쿠킹클래스를 통해 가족들이 함께 요리하는 즐거움과 K-테마파크의 다양한 6촌(한옥촌,한음악촌,한복촌,한지촌,한글촌,한식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11월에 진행되는 원데이 쿠킹클래스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봉화군,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이월·불용액 최소화 방안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대응



봉화군은 1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배진태 부군수 주재로 실과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집행률 제고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추진방안 등에 대해 전달하고 사업별 신속한 추진과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당부했다.

2024년 하반기 재정집행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고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재정 정책으로,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봉화군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집중 대응하고 사업들이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생활 경제와 밀접한 예산의 집중관리로 연말까지 집행률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배진태 부군수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인 만큼 지역 경기 회복과 군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개발과 함께 하반기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천한우 맞춤형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4개월 총 14회 걸쳐 교육
판정 과정 체험 포함 호응



예천군은 지난 17일 오후 4시 한우농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천군 단샘어울림센터 회의실에서 2024년 '예천한우 맞춤형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예천한우 맞춤형 아카데미'는 예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우농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20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0월 17일까지 4개월 동안 총 14회에 걸쳐 운영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한우개량, 사양관리, 질병관리, 양질의 조사료 생산관리, 수정란 이식, 한우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등 각 분야의 저명한 강사들이 이론강의를 진행했으며, 공판장을 방문해 소 등급판정 과정을 체험하는 현장학습도 포함되어 있어 참여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수료식에서 교육생 30명이 수료증을 받았고, 전체 교육과정에 출석한 1명의 모범 교육생이 개근상을 받았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교육생은 "축산업에 시작하

기 전에 한우 사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교육뿐만 아니라 농가 간 교류하고 사육 노하우를 공유해 축사 운영에 적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제2기 예천한우 맞춤형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개월간 뜨거운 열정으로 이수한 수료생들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천한우 발전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천군은 내년 초에도 교육생을 모집해 한우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더 많은 한우 농가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의성군, 장애인 단기스포츠 컬링 체험 진행

생활체육지도자 등 20명 참가
컬링지도자 사전 안전교육 진행

후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화지원 사업의 하나이다. 장애인, 컬링지도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수어통역사 등 20여명이 참가한다.

의성군은 16~2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의성컬링센터에서 2024년 장애인 단기스포츠 컬링 체험 강화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관내 장애인들의 폭넓은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성군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북권위원회가

참가자들은 컬링화 및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컬링지도자의 사전 안전교육을 받은 후 스윙핑 체험 스톤 던지기 체험 등 다양한 컬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평소 스포츠 활동에 제약 없이 많은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강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자녀더갓기운동 예천군협, 가족 미션 트레킹

10세 이하 자녀 50세대 참여
민속놀이 체험 등 미션 수행

며 가족간 화합을 도모하고 '함께 육아'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며, 이날 행사에는 군에 거주하는 1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 50세대가 참여했다.

예천군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한자녀더갓기운동 예천군협의회(회장 신계봉)는 19일 삼강문화단지 일원에서 '가족 미션 트레킹'을 개최했다.

가족 미션 트레킹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

이벤트 행사에서는 △가족 인생샷 찍기 △보물찾기 △추억의 뽑기 △느린우체통 엮서 쓰기 △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미션들을 가족이 함께 수행하면서 유대감과 정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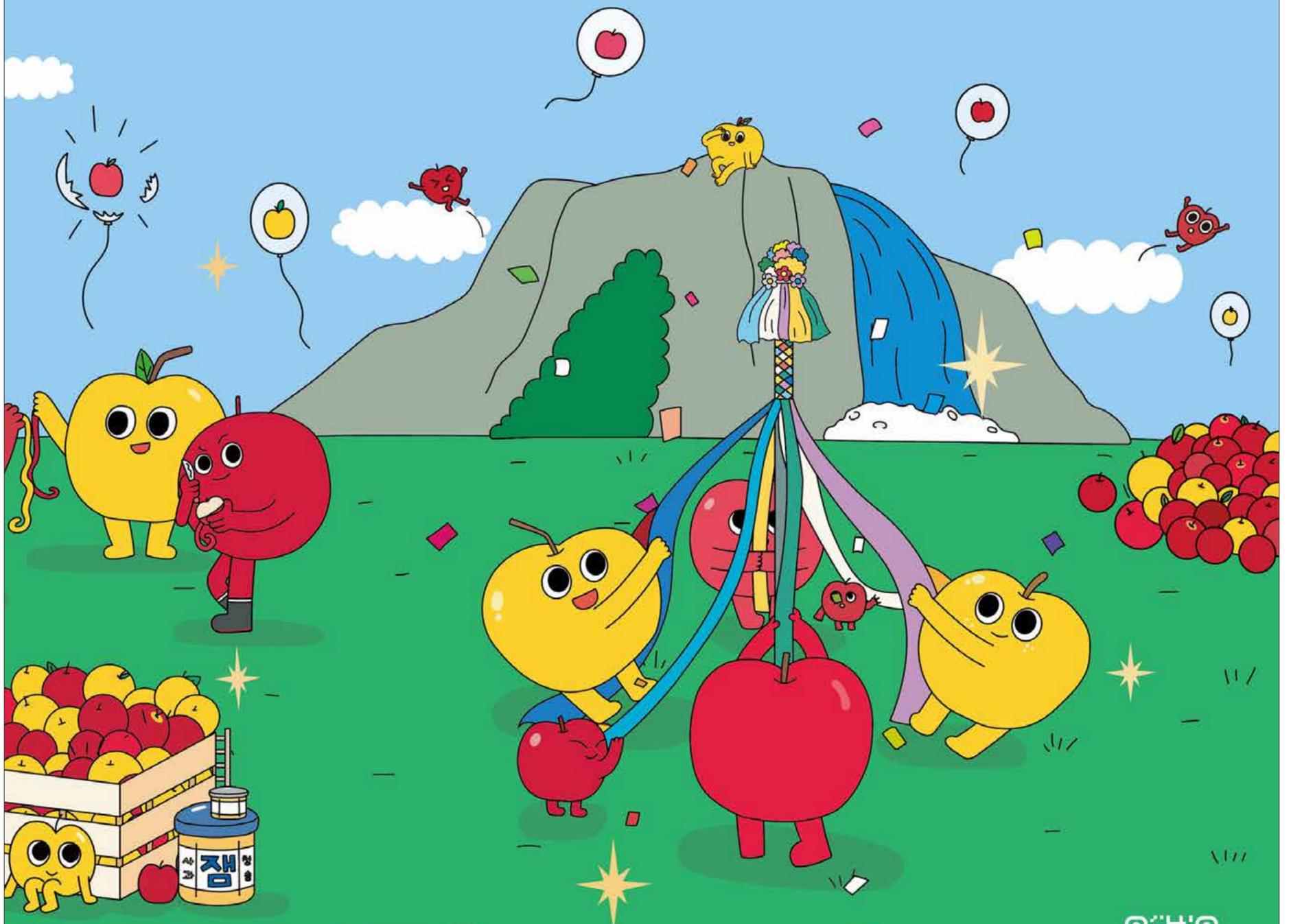
제18회

청송사과축제

청송사과 끝없는 비상

2024. 10. 30. (수) ~ 11. 03. (일)

청송읍 용전천 현비암 일원



주최 / 주관 청송군 / 청송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경상북도, 청송군의회, 청송경찰서, 청송소방서, 청송교육지원청, 청송군관내농축협, (사)청송사과협회, K-water청송권지사, 한국수력원자력청송양수발전소, 청송문화원 등

